

○…국회의원도 지내고 웬만한 사람이면 그 분의 이름 3자는 기억할 수 있고 국립공원협회 이사이며 산악계서도 손꼽는 명사 K 씨는 「어떤 국립공원은 산악회 등반훈련시 야영한 일수에 따라 입장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어떤 국립공원은 이해를 해 주는데 어째서 그런가?」고 묻는다. 관계 당국에 알아 본즉 「원칙은 입장료가 하루 단위로 돼 있으나 산악회의 행사로 야영하는 것 까지 내라는 곳이 어디 있겠으며 그것은 일부 몰상식한 관리 직원의 말이 아니겠느냐」는 답변.

각 국립공원이나 도립, 군립공원의 관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 운영되고 있는 만치 반드시 일사불란 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연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진 산악회의 행사에까지 운영의 묘가 없다면 섭섭한 일.

○…국립공원에 다녀 온 사람들의 하소연 가운데 특히 부인들의 화장실에 대한 불평이 많다. 신체 구조상 남자는 어떤 경우에 따라 임기 응변으로 巨木 밑에서 施肥하는 기분을 낼 수도 있겠지만 성장한 부인들의 경우는 난처할 수 밖에…….

「화장실에 들어 가보니 기절초풍해요. 오물이 딱차서 밑에 닿을 것 같아 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서 볼 수도 없고 냄새는 지독하고요…» 이것은 지난여름 유명한 사찰이 있는 G국립공원의 예.

무엇이건 버려 수세식 변기를 쓰레기 통으로 만드는 몰지각한 觀光客이 첫째 문제이고 둘째는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관리상의 문제도 큰 문제.

○…최근에 개장한 八公山 「스카이라인」의 관리자 고충담 한 토막… 『리프트를 타고 기분을 내야하니 소주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야겠다』고 악을 쓰는 젊은이. 「고무맬트」 위에 담배불을 던져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리프트」를 타고는 발을 굴리고 벽을 차야 속 시원한

군상들. 담배불을 아무데나 던지는 통에 肝이 떨어질 지경이란다. 國産이 없어 台當 百만 원씩 주고 頂上用으로 『移動式化粧室을 몇台設置했더니 며칠 안돼 막히고 破損되니 정말 울고 싶어요…』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얘기 뿐이다. 이래서야 언제 1등 국민이 될 것인지 어느 外國觀光客이 우리나라 공원에 가고파도 「화장실이 무서워 못 가겠다」고 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진다.

○…〈바로미터〉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종이(紙) 대량 소비국으로 등장했다. 「종이 使用量이 ○○의 “바로미터”라는데 ○○은 무엇일까요…」하고 퀴즈狂의 女性에게 물었더니 「부끄러워…종이만으론 모르잖아…요즘은 외국식으로 꺼즈를 쓰는 이도 많으니까…」 이것은 무언가 착각한 오버 센스. 正答은 文化의 바로미터. 아주 옛날은 종이는 金값과 같았기에 뒷 종이로는 엄두도 못내고 손으로 처리했다고. “비누”도 없었으니 그 苦衷은 대단했을듯. 翌이나 翌을 사용한 것은 가까웠던 얘기. 日本 東大 教授인 故吉岡力씨가 조사한 바 日本도 王朝 때의 美女들 까지도 例外 없이 손으로 씻었다나. (j)

